

9/20/20

설교 제목: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25 장 23-34 절

-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 (창 25: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 (창 25: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 (창 25: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¹⁾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 (창 25: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절관주** 히 11:9
- (창 25: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 (창 25:29) 야곱이 죽을 썩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 (창 25: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 (창 25:31)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 (창 25: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 (창 25: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 (창 25: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은 언약의 계대로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 장자인 에서를 제끼고 차자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리브가가 임신 중 자신의 뱃속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끼고 근심하여 하나님께 여쭙어 보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 25: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말씀인즉 하나님이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롬 9:12)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롬 9:13)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여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막상 해산을 하고 보니 의외였습니다.

(창 25: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창 25: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창 25: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분명 하나님이 어린 자가 큰 자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태어날 때 보니 어린 자 야곱이 큰 자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것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보다 더 강한 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잘못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날 때 이미 틴에이저였기에 이삭을 데리고 놀렸습니다.

결혼도 일찍했고 아들들도 열 두명이나 두어 번성했습니다.

반면 이삭은 40 살에 결혼하여 20 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60 살에 겨우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 둘도 처음에는 이스마엘이 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결국 이삭을 강한 자로 만들어 내십니다.

에서와 이삭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태어날 때 에서가 야곱보다 강한 자였습니다.

외모도 에서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 남자다왔습니다.

반면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장성해서도 에서는 유능한 사냥꾼이 되었으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했습니다.

(창 25: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강한 자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야곱은 온갖 역경과 고난을 겪으며 연단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 강한 자로 만들어져
결국 거룩하게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이에 반해 강한 자로 태어났던 에서는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인본주의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 즉 예정으로 택하여지는 것이라면 인간이
애써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합니다.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되고 견인의 은총까지 주어져 구원이 결정되는데 인간이
굳이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인간을 게으르게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가 선택되었는지 누가 유기되었는지 또 선택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 부르심을 받을지
등등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강제적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하는 일을 통해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이 인간을 게으르거나 나태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택함에 인간의 공로가 개입되지 않으므로 인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밖에 없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신의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예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엡 1:3)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엡 1: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엡 1:6)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엡 1:7)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자유로우신 뜻 안에서 야곱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 25: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창 25: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인해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에서를 야곱보다 사랑한 것입니다.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왜 야곱을 사랑하지 않고 에서를 사랑하였을까요?

이삭은 자신도 아브라함의 여러 자식들 중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선택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부패성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경건하다고 할지라도 결국 모든 인간은 부패합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려고 번제단에 놓고 묶을 때도 저항한 번 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을 만큼 믿음이 좋은 자였습니다.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도 들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에서가 사냥해다가 주는 고기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반해 에서를 사랑하였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부패합니다.

그리고 그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며 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당신이 긍휼히 여길 자와 불쌍히 여길 자를 구별하여 택하시고 택한 자를 끝까지 견인하여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실패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서가 팔죽 한 사발에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판 것입니다.

(창 25:29)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창 25: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창 25:31)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창 25: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창 25: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창 25: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이란 아버지의 유산을 배갑절 받는 권한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특권이지만 특별히 아브라함 가정의 장자의 명분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계대될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은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내려오는 육적인 복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장자의 명분을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붉은 팔죽 한 사발에 팔아 넘겼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판 후에도 그것을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여 되찾으는 노력도 하지 않고 생각없이 장자의 명분과 바꾼 떡과 팔죽을 다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습니다.

도대체 그가 장자의 명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알기나 하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반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중시하여 장자의 명분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우리는 에서를 통해 하나님이 유기한 자의 종국을 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는 자신의 뜻대로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을 선택을 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와 같은 행동을 유기하십니다.

반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세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사모하여 넘어지면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연단시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십니다.

이것이 택함 받은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견인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배가 고프다고 장자의 명분을 팔 죽 한 그릇에 판 에서에게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또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 마침내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내는 야곱에게서 인간의 비열함도 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들의 행동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당신이 만든 한 사람 한 사람의 형질까지 다 아시고 그것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 꿰뚫고 계신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피상적으로 보면 야곱의 알팍한 술수로 인해 발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깊게 들여다 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자유로우신 뜻에 달려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란 말이 나옵니다.

(히 12: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히 12: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히 12:24)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 12:25)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보나

시온 산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른 곳이 시온 산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천국 시민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란 택함 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곧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복의 가치도 모르고 팔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과 영생과 천국의 복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과 바꾸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복이 계승되기를 사모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